

번호: PO-EP-043					
제 목	여성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가정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증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ork Stress and Family Stress on Negative Emotions among Female Workers				
저 자 및 소 속	김영미1), 엄기두1), 임상혁2), 백도명1), 조성일1) 1)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노동건강환경연구소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직장 여성에 있어 가정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직무 스트레스와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p> <p><b>방법:</b> 서울의 한 교통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측정은 Karasek이 개발한 JCQ 2.0을 사용하였다. JCQ 2.0은 기존의 직무요구, 통제 외에 직무상의 감정적 요구(Emotional Demand)의 측정항목을 포함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증상(negative emotion)은 CES-D에서 추출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p> <p><b>결과:</b> 이 집단의 연령분포는 40대(44.84%) 30대(41.00%) 50대(12.98%) 20대(1.18%)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40.12%) 대졸(35.69%) 전문대졸(13.98%)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의 비율(88.33%)이 미혼자(10.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형태는 사무직, 보건관리자, 세탁소, 식당근무 등 다양했으며 이들의 지하철공사 평균 근무 기간은 14.63년으로 나타났다.</p> <p>이 집단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직무 재량(Decision Latitude) 평균 58.29, 직무 요구(Psychological Job Demand) 평균 31.77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가정내 스트레스(WFS)는 기혼 집단이 미혼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math>p &lt; 0.05</math>).</p> <p>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 NE)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무 재량(<math>p=0.0005</math>), 직무 요구(<math>p=0.0095</math>), 감정적 요구(<math>p &lt; 0.0001</math>), 가정스트레스(<math>p &lt; 0.0001</math>), 결혼여부(<math>p=0.003</math>), 교육수준(<math>p=0.0062</math>), 연령(<math>p=0.0436</math>)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근무기간(<math>p=0.9210</math>)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은 나타내지 않았다.</p> <p><b>결론:</b> 이 집단에서는 직무재량과 직무요구 등 직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외에도 가정의 스트레스 요인이 독립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부정적 정서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 스트레스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p>					